



말씀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지금은 서남쪽 끝자락인 목포에서 생활하는 관계로 자주 가지 못하지만, 입대 전에는 자주 강화도에 있는 신학교를 방문하곤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그저 가서 함께 기도하고 밥 먹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너무 좋아서 자주 다녔지요. 언젠가 신학교에 가서 저녁기도를 함께 바치고 학사님·부제님들과 저녁식사를 하러 식당에 올라가며 엄청 짓궂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야, 삼위일체가 뭐냐?” 다들 답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데 한 센스 있는 부제님이 이렇게 답해주었습니다. “형, 삼합이요! 김치만 먹어도 맛나고, 홍어만 먹어도 맛나고, 보쌈만 먹어도 맛난데 그게 하나가 되어 얼마나 최고의 맛을 내는지... 성부 하느님도 좋고, 성자 예수님도 좋고, 위로자 성령도 참 좋은데 세 위격이 하나가 되니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맛깔난 대답으로 모두에게 웃음을 주었습니다. 물론, 온전히 삼위일체의 신비를 표현하기에는 큰 오류가 있는 답이었지만, 한참을 웃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삼위일체가 뭐냐?”는 질문이 짓궂은 이유가 아무리 찾아도 답이 없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교회의 길고 긴 역사 속에서 천재라고 불렸던 성인들께서도 삼위일체의 신비를 설명하는 데 실패했었던 거예요. 그러니 선배라는 인간이 갑자기 와서 답도 없는 것을 물어보고 있으니 얼마나 짓궂은 일이었겠습니까.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이지만 교회의 노력으로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삼위로 흠송한다. 그러나 성부·성자·성령의 각 위격이 다르지만 삼위의 천주성은 하나이고 그 영광은 동일하고 그 위엄은 다 같이 영원하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266항의 내용입니다. 세 위격으로 구분되지만, 각각이 온전한 한 하느님이십니다. 무슨 소리인지... 사실 저도 찾아보고도 한참을 들여다보고 그냥 깔끔하게 포기했습니다. 꼭

이해를 해야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사실 현대에 들어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시간을 가지고 가 아니라 그저 휴대폰 검색처럼 궁금한 것의 답이 바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의심을 버리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믿어야 할 진리를 쉽게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에 나와 있듯이, 어쩌면 지금은 우리가 그 진리를 다 안다면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진리의 영께서 오셔서 우리를 깨우쳐주시진, 그저 우리는 주님이 알려주신 그 진리를 단순하게 믿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믿으려고 이해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이해하고자 믿어야 하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축일을 지내는 삼위일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삼위일체가 무엇이냐고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분이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만 기억해봅시다. 그것마저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저 의심을 버리고 믿어봅시다. 의심이 올라올 때면 “아냐, 이것은 분명 진리야!” 하면서 말이지요.

보지 않고 믿는 이는 행복하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해를 바라지 않고 믿어봅시다. “주님, 저희에게 보여주신 삼위일체의 신비를, 그저 굳게 믿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김준검(요한보스코) 신부
목포해군(3월)대 상당 주임

제 1 특 시 회 답 송 제 2 특 시 복음 반호송

- 잠언 8,22-31
- ◎ 주님, 저희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 로마 5,1-5
-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받으소서. ◎

특 음 영 성 제 송

- 요한 16,12-15
-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셨다.
그 영이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신다.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원시보 야고보



성인명: 원시보 야고보 (元-- James)

신분: 양인, 순교자

활동연도: 1730-1799년

원(元) 시보 야고보는 충청도 홍주 응정리(현, 충남 당진군 합덕읍 성동리)의 양인(良人) 집안 출신이다. 그의 나이 60세가 다 되어서야 사촌 동생 원시장 베드로와 함께 천주교 교리를 듣고 입교하였다. '시보'는 그의 관명(冠名)이다.

본디 성품이 어질고 순하며 정직하고 활달하였던 원 야고보는, 입교하자마자 교회의 가르침을 충실히 지키며 온갖 덕행을 실천하였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 재산을 희사하였고 금요일마다 금식하였으며,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노력하였다.

1795년 무렵, 원 야고보는 주 야고보 신부를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첩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주 신부에게 성사를 받지 못하자, 집으로 돌아가서는 바로 첩을 내보냈다. 이로부터 2년 후에는 정사박해가 충청도 전역을 휩쓸게 되었다. 원 야고보도 1798년에 체포되어 덕산 관아에서 문초와 형벌을 받게 되었다. 이때 그의 나이 68세였다. 그런 다음 홍주로 압송되었다가 다시 덕산으로 끌려와 몹시 두들겨 맞았으며, 형벌로 인해 두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다. 1799년 원 야고보는 감사의 명령에 따라 병영(兵營)이 있던 청주로 이송되었다. 청주에 도착하자마자 원 야고보는 관장 앞으로 끌려나가 문초를 당하였다. 관장은 그를 배교시키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순교의 원의로 가득 찬 그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다. 덕산에서 이미 두 다리가 부러졌던 원 야고보에게 다시 온갖 혹형이 가해졌으며, 그는 결국 이를 이겨 내지 못하고 말았다. 그때가 1799년 4월 17일 (음력 3월 13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69세였다.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표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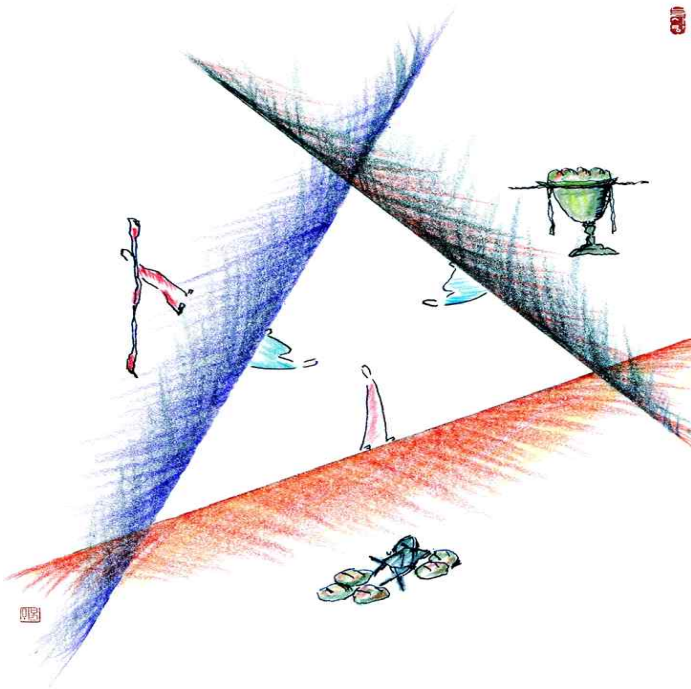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하늘을 덮는다 하여도.

물고기 두 마리, 빵 다섯 개가 아닌,
둘로 빵을 만들어,
만 명을 먹인다 하여도.

예수가 다시 돌아와
십자가를 매고,
은 나라를 돈다 하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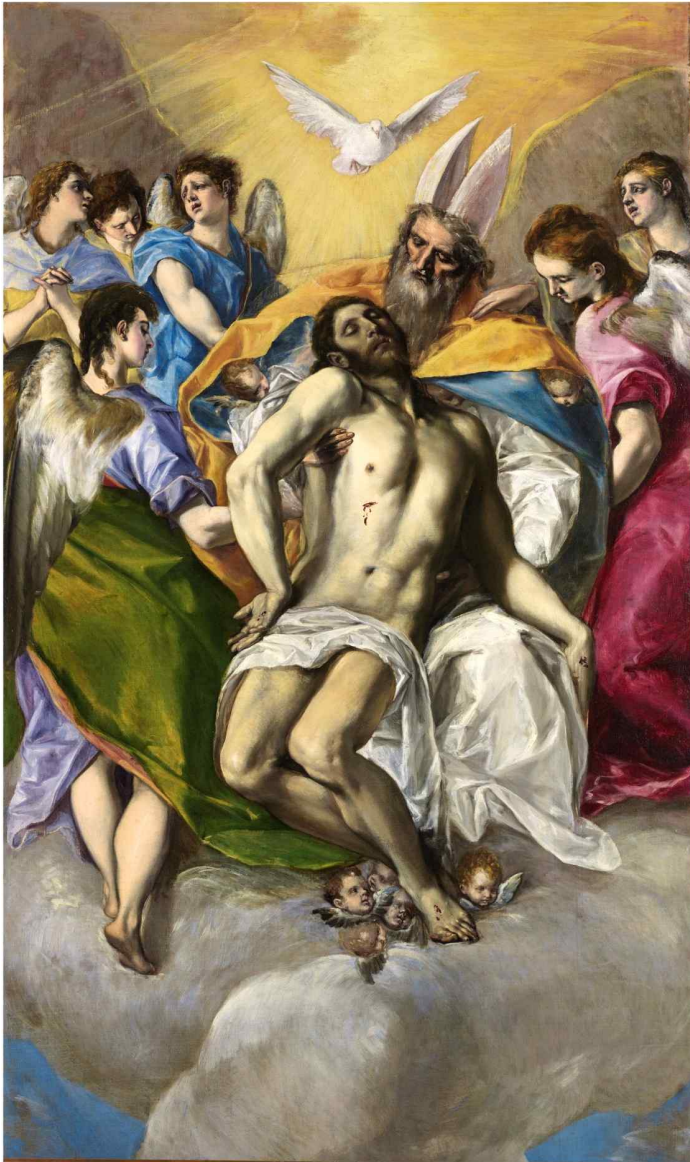
우리는 그걸 표징으로 믿고,
님의 뒤를 따라갈까?

표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없음을 고백해야 할 때입니다.



상화이야기

상심위일제



하늘 위 공간으로 보이는 구름으로 둘러싸인 이곳에, 죽음의 잿빛색이 얼굴에 완연한 예수님이 하느님의 품에 안겨 계시고, 하느님의 머리 위에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있다. 6명의 천사가 통곡하고 슬퍼하며 주위를 둘러싸고 있으며, 몇몇은 예수님을 들고 계신 하느님의 팔을 부축하고 있다. 아기 천사들은 예수님의 발치와 하느님의 옷자락 사이에서 얼굴을 내밀고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예수님을 안고 계신 성모님) 작품과의 유사성을 학자들이 말하기도 하지만, 구도는 비슷하더라도 그레코만의 약간 길게 늘어난 인물이나 뒤틀린 듯한 자세, 그리고 충만한 감정과 무언가 비현실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 등이 인상적이다.

“그분께서 하늘을 세우실 때, 심연 위에 테두리를 정하실 때 나 거기 있었다. 그분께서 위의 구름을 굳히시고 심연의 샘들을 솟구치게 하실 때, 물이 그분의 명령을 어기지 않도록 바다에 경계를 두실 때, 그분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실 때 나는 그분 곁에서 사랑받는 아이였다. 나는 날마다 그분께 즐거움이었고 언제나 그분 앞에서 뛰놀았다. 나는 그분께서 지으신 땅 위에서 뛰놀며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잠언 8,27-31)

엘 그레코, 1577-1579년경 제작
캔버스 위 유화, 300x179cm / 미드리트 프리도 미술관, 스페인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심위일제 대축일: 지성대 농희표 신부

◆ 교구장 동정

-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미사
 때: 6월 16일(주일)
- 2019년 한국가톨릭원목자협회
 제4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
 때·곳: 6월 20일(목)~21일(금), 한마음 청소년 수련원

◆ ‘군중의 시간’ 안내

때: 주일 오후 4시 - 5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평화방송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모든 이를 심기는 삶” -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요한 13,14)